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동방신기 3집 쇼케이스에 4만명 열광

일본, 중국, 호주 등 글로벌 팬 1천여명 참가...SBS 이달 중순 방영



남성 5인조 동방신기가 4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3집 활동을 시작을 선포했다.

동방신기는 30일 오후 8시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새 음반 '오-정.반.함'을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펼쳤다.

올해 일본과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라이브 콘서트 투어를 벌이고 특히 일본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해외 활동에 주력한 동방신기는 10개월여 만에 국내 팬을 다시 만나 한층 성숙한 모습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 실황은 특히 정식 콘서트에 아닌 쇼케이스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SBS TV를 통해 10월 중 방영될 예정이다.

동방신기는 '갯 미 섬(Get Me Some)' '아일 비 데어(I'll Be There)' '오-정.반.함' 등 새 음반 수록곡과 '라이징 선(Rising Sun)' '아이 워너 홀드 유(I Wanna Hold You)' '그리고...' 등 이전 히트곡 등 모두 6곡을 선사했다.

댄스곡인 '갯 미 섬'과 '오-정.반.함'을 부르면서는 T자 형태의 무대 곳곳을 활용, 더욱 절도 있고 강력해진 춤 실력을 선보였다. 발라드곡인 '아일 비 데어'에서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관객을 감동시켰다.

"東方神起 '오-정.반.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아방 팔찌를 판매, 자선기금을 마련하는 동방신기는 이날 무대에 이 팔찌를 차고 올라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국내 팬들과 오랜 만에 재회한 만큼 동방신기는 노래 중간중간 사회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팬버 각자의 다양한 매력에 보여줬다.

각자 목소리의 매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깊이 있는 소리"(유노윤호), "카랑카랑함"(최강창민), "부드러움"(탁기우), "하스키함"(시아준수)이라고 답한 멤버들은 팬들의 요청으로 각자의 매력을 잘 나타내는 노래 한 소절씩을 들려줬다. 시아준수는 돌고래 소리 성대모사(?)로 팬들을 즐겁게 했다.

지방에서 단체 버스로 온 팬들의 도착이 늦어 쇼케이스가 1시간 지연될 만큼 수많은 지방 팬들이 이날 올림픽주경기장을 찾았으며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홍콩 등 동방신기의 글로벌 팬클럽 회원 1천여 명도 함께 했다.

“왜 뮤즈그레인이 탈락했지?”

네티즌들, KBS 대학가예제 심사에 이의 제기

'상 받음 사람이 못 받았다?' 기 때문. 뮤즈그레인은 전주교대 학생들 이 모인 그룹으로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이 모인 그룹으로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접목시킨 재즈풍의 노래 'Into the rain'의 로 올해 대학가예제에 참가했다. 이 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유명 재즈 그룹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 "뮤즈그레인이 어떠한 상도 수상에 하지 못했

무대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 "보컬의 독특한 음색이 기억에 남는다" "대상을 받은 JJMP와 함께 뮤즈그레인을 대상 후보로 점찍었는데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해 아쉽다"며 뮤즈그레인이 수상에 실패한 것을 안타까워 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대학가예제'에서는 '21살 이야기'를 부른 경희대 포스트모던학과 혼성듀엣 JJMP가 대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년 만에"를 부른 고려대 외대 임채홍이 차지했다.

Advertisement for 'Digital Protection' (디지털 보청기) featuring a horse and rider,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sales and service centers.

케이블·위성TV 2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for the day.